



KIA 투타 부진·주전들 줄부상...성적은 '바닥'

‘비상구’ 안보인다

선수들의 줄부상과 무너지는 선발 마운드만 생각하면 한숨밖에 나오질 않는다. 팬들은 KIA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감독 퇴진운동'을 벌이면서 버리고 있다.

서 감독 모색찾기 골몰

“6월엔 좋아질 겁니다”

시즌이 중반으로 접어드는 6월에 따라 붙지 않으면 '가을 잔치'의 초대장도 날아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KIA는 1일 현재 8개 구단 중 꼴짜다. 시즌 초반 무너지는 선발 마운드에 타선의 동반 부진, 최희섭의 부상 등 각종 악재가 겹친 탓이다.

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앞선대 맞선격으로 3선발로 활약하던 이대진도 어깨 통증으로 2군에 내려갔다. 2선발이던 신임 용병 에스턴은 팔꿈치 부상으로 퇴출됐고, 미들필드 정원과 전병두도 아프다. 부상의 여파는 마운드를 뒤흔들고 있다. 김진우의 부상이 장기화되면서 선발진이 무너졌다. 현재 윤석민, 스코비, 신용은, 진민호, 이상화로 운영하고 있지만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 타자들의 부상도 심각하다. 최희섭이 열구리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고, 포수 김상훈은 허리가 아프다. 3할타자 장성호도 등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현곤은 갑상선 이상으로, 김원섭은 간염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월 발목 부상으로 겨울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이용규도 그 여파로 해매고 있다. 그나마 '노장' 이종범과 김중국이 건강하게 1할타로 부진하다. 하지만 무조건 비판의 목소리는 아니다. 김진우가 6월 중순께 복귀할 예정이고, 최희섭도 부상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 예상보다 빨리 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부상 선수들도 상대가 점점 나지고 있다. 다만 이렇듯 팀에 가담하기 전까지 어떻게 버텨나가는냐가 관건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윌리엄스 자매’ 괴력

통산 '메이저' 13번 우승...무적과시 언니 비너스 서브 구속 무려 206km



1990년대 말부터 여자 테니스계를 주름잡고 있는 '흑진주 자매'의 괴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비너스 윌리엄스(27위·사진)와 세레나 윌리엄스(8위·이상 미국) 자매는 돌이 합쳐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13개나 수집하며 큰 10년째 무적 시대를 구가 중이다. 남성 못지않은 근육질 몸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공할 스트로크는 여자 테니스에서는 가히 독보적인 수준이다. 언니 비너스가 31일(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 가로 코트에서 열린 2007년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진기록 하나를 세웠다. 에슬리 하커로드(80위·미국)와 단식 2회전에서 무려 206km짜리 광서브를 찍은 것이다. 로이터통신과 AP통신은 여자프로테니스협회(WTA) 확인을 통해 이날 비너스의 서브가 역대 투어 대회 최 메이저대회 본선에서 여자 선수가 기록한 가장 빠른 서브라고 전했다. 잔디나 하드 코트에 비해 공이 느리게 타는 클레이코트에서 수집한 기록이라 더욱 놀랍다. 시속 200km 이상의 광서브는 더 이상 남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게 새삼 증명됐다. 비너스는 1998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투어 대회 8강전에서 프랑스의 마리 피에르스를 상대로 204km짜리 서브를 폭발시켰는데 이날 9년 만에 자신의 최고 기록을 넘어섰다. 206km는 남자 선수들의 파워에 견줘도 절대 뒤지지 않는 수치다. 프랑스오픈 홈페이지에 따르면 남자 1위는 226km를 찍은 이보 카를로비치(85위·크로아티아)다. 10월에 포함한 전수는 모두 218km 이상을 찍었다. 여자부에서는 비너스에 이어 동생 세레나가 192km로 2위를 달리고 있다. 파워라면 언니보다 나는 세레나는 1월 호주오픈에서는 여자 출전 선수 128명 가운데 유일하게 200km 이상의 서브를 연일 꽂아 넣으며 로저 '힘프' 우승을 일궈냈다.

박태환 7월초 일본으로 전지훈련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프레올림픽(일본오픈수영대회)에 대비해 7월 초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 박태환 전담팀 훈련을 지원하는 수영용품전문 브랜드 스피도는 지난달 31일 '8월21일부터 일본 지바에서 열리는 프레올림픽을 앞두고 7월 초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훈련은 매일 반복되는 국내 훈련을 벗어나 기본 전형을 할 수 있는 데다 일찍이 지 기후 적응을 함으로써 실전에서 기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태환은 그동안 대회 직전 전지훈련 효과를 톡톡히 봐왔다. 지난해 도하아시아게임 직전에는 중국 쿤

밍에서 고지대 훈련을 한 뒤 3관왕에 올랐고, 지난 3월 호주 벨버너 세계선수권대회 전에는 극도로 훈련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금과 호수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자유형 400m 금메달과 200m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프레올림픽에는 미국이나 호주 등 수영 강국의 스타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에 세계선수권대회와 마찬가지로 올림픽 금메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손석배 스피도 마케팅팀장은 "아직 어느 지역으로 갈 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건 90% 이상 확정됐다"며 "전지훈련을 하다 대회 직전 대회 장소인 지바로 이동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1일(금)
▲메이저리그(디트로이트-클리블랜드) (07 : 55·Xports). <텍사스-시애틀>(10 : 55·Xports)
▲세계 여자 비치발리볼 월드컵(13 : 50·MBC)
▲힐스 테이트 서점오픈 골프 1R(14 : 00·KBS2)
▲육상종합선수권(14 : 10·KBS1)
▲프로야구(LG-두산)(18 : 00·KBSN Sports). <롯데-KIA>(18 : 20·SBS스포츠 2일(토))
▲잉글랜드 국가 대표 친선 축구(잉글랜드-브라질)(03 : 30·MBC ESPN)
▲PGA투어 더 메모리얼 토너먼트 2R(06 : 00·SBS스포츠)



“팬들 격려에 꼭 보답”

프로농구 서울삼성 유니폼 입은 이상민
'농구 명가' 서울 삼성의 유니폼을 입게 된 '산소같은 남자' 이상민(35)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태평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엔 최고 명문구단이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KCC에서 달았던 등번호 11번의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한 이상민은 "매칠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전 소속팀인 KCC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팬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됐고 단장님과 감독님이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감사 드린다"고 덧붙였다. KCC와 그 전신인 현대에서 꼴판 뛰어온 프랜차이즈 스타였다가 KCC가 '국보급 센터' 서장훈을 영입하면서 보상 선수로 삼심으로 옮기게 된 이상민은 "시(장훈)와 통화했다. 오랜만에 다시 손발을 맞춰보고 싶었는데 소원이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장훈이가 자기 때문에 내가 희생양이 됐다고 미안해하며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장훈이 때문이 아니고 장훈이와 인연은 대학 때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KCC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Real estate listings table with columns: 소재지, 물건개요, 감정가, 최저가, 비고. Includes sections for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다가구/상가주택, 단독주택/재개발, 근린시설, 농지/임야/공장, 대지, 모텔, 기 타.

Advertisement for CCTV and KIA. Includes text: 디지털 CCTV 파격가 129,000원, KIA 기자자동차 신시청대리점, 강경정 (오피러스·캐논) 로케 시승차 상시대기!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Includes text: 고시원매매, 4층 원룸매매, 상업지매매, 사무실임대, 화물자동차 전문매매.

Advertisement for DYNESCO. Includes text: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갈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